

## 선타임스 “파친코, 2022 최고의 TV 드라마”

재일한국인 가족의 파란만장한 삶과 이민사를 다룬 드라마 ‘파친코’가 미국 유력 일간지 소속 유명 영화평론가가 뽑은 ‘2022 최고의 TV 드라마’로 선정됐다.

시카고 양대 종합일간지 중 하나인 시카고 선타임스는 지난 28일 ‘리처드 로퍼가 뽑은 2022 베스트 TV’ 톱10을 소개하면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애플 TV 플러스의 파친코를 1위로 꼽았다.



▲ ‘파친코’ 스페셜 포스터. 사진=애플TV+

스 루츠’ (The Grass Roots)의 올드팝 ‘레즈 리브 포 투데이’ (Let’s Live For Today·1967)에 맞춰 연달아 춤을 추는 영상이다.

로퍼는 “최근 수년간 나온 TV 드라마 시리즈 중 최고의 작품이 그 위로 이어진다.”며 “75년에 걸친 한 한국인 가족의 인생 여정을 따라 뛰어난 전개·고혹적 영상·정련된 연기를 선보이는, 기억에 깊이 남는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영화 ‘미나리’로 아카

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대배우’ 윤여정, 이민호, 김민하 등이 빛나는 연기를 펼친다.”며 “한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놀랄 만큼 독창적인 명작”이라고 파친코를 최고의 TV 드라마로 선정할 이유를 설명했다.

로퍼는 이 드라마의 도입부 영상을 “TV 역사상 가장 탁월한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Opening Credit Sequences)’ 중 하나”라고 평했다. 시대상이 담긴 사진·동영상들이 교차하다 여러 세대에 걸친 등장인물이 파친코 아케이드에서 미국 록밴드 ‘그레

## 캐머런, ‘아바타’ 총기 장면 10여분 삭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자신이 제작한 ‘아바타: 물의 길’에서 10여분의 ‘총기 장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캐머런 감독은 분량 삭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총기 우상화’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캐머런 감독은 최근 잡지사 ‘에스콰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나는 작품 속 빛과 어둠의 균형을 찾기 위해 추한 것들을 없애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물의 길’에 총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영화에는 여전히 끔찍하고 메스꺼운 결과를 초래하는 총기 폭력이 다수 등장하지만, 이는 모두 드라마의 갈등과 서사를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터미네이터’, ‘람보’, ‘에이리언’ 시리즈 등에서 수많은 ‘명품 총기 액션’을 보여준 캐머런 감독은 30년이 흐른 지금 과거의 젊은 자신이 촬영하곤 했던 ‘총기 우상화’ 장면들을 다시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캐머런 감독은 현재 모든 반자동소총류 판매를



▲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의 한 장면. 사진=scroll.in

전면 금지한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다.

캐머런 감독은 최근 많은 인터뷰를 통해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다수 공유해왔다. 일례로 지난 19일에는 유명 팟캐스트 ‘스마트리스’ (SmartLess)에 출연해 “터미네이터 시리즈 차기작을 촬영하게 된다면 미처버린 로봇들보다는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넷플릭스 “전세계 회원 60% K콘텐츠 봤다”



▲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의 한 장면. 사진=넷플릭스

2022년 한 해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 10명 중 6명은 1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주목 받은 비영어 시리즈·영화 순위 ‘탑 10’에 한국 작품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지난 29일 넷플릭스는 공식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올 한해 주목받은 10대 주요 글로벌 하이라이트’를 공개했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며 “전 세계 190여 개국의 회원 중 60%가 올 한해 1편 이상 한국 작품을 시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ENA 드라마 ‘이상한 나라의 우영우’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큰 주목을 받았다. 누적 시청 시간(2022년 1월 1일~12월 18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비영어 시리즈 부문에서 각각 1, 2위를 달성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SBS 드라마 ‘사내맞선’은 8위에 올랐다.

비영어 시리즈 부문 탑10을 보면 ▲1위. All of Us Are Dead(지금 우리 학교는·한국) ▲2위. Extraordinary Attorney Woo(이상한 나라의 우영우·한국) ▲3위. The Marked Heart(콜롬비아) ▲4위. Til Money Do Us Part(콜롬비아) ▲5위. Elite(스페인) ▲6위. High Hit(스페인) ▲7위. The Empress(독일) ▲8위. Business Proposal(사내맞선·한국) ▲9위. Wrong Side of the Tracks(스페인) ▲10위. Welcome to Eden(스페인) 순이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 Home Remodeling